

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

- 조선·해운·철강·석유화학 업종 -

2017. 1. 25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조선	1
II. 해운	7
III. 철강	14
IV. 석유화학	19
V. 향후 점검 계획	24
[참고] 업종별 주요 정책과제 17년 세부 추진 일정	25

I. 조선

16년 성과

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위기에 대응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손실의 급격한 현재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

- ① (자구노력)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고강도 자구계획과 유동성 방안을 마련·이행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생존기반 마련
 - * 대형3사는 10.3조원의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4.3조원 이행(이행률 42%), 자본확충(삼성 1.1조원, 대우 2.8조원) 등으로 유동성 확보
 - 대우조선은 정상화 추진을 통해 선박 64척을 정상인도하였고 금융채무 3.6조원을 상환하는 등 급격한 부실처리시의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
- ② (경쟁력 강화) 조선사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여 정부도 조선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행
 - 4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발주를 완료('16.12월)하는 등 수주절벽에 적극 대응
 - LNG 선박 연관산업 육성전략을 수립('16.11월)하는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
- ③ (보완대책)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('16.7월)하고 고용지원대책('16.6월)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('16.10월)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 최소화 노력 병행

17년 계획

자구노력 강화를 통해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만전

- ① (자구노력) 올해만 4조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3사 10.3조원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%에서 올해 80% 이상으로 높이고, 건조능력 추가 축소(도크 3개, 직영인력 1.4만명)
 - 조선 기자재 업체 15개사 이상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
- ② (수주대응) 1.5조원 규모 군함 2개 사업을 상반기 중 조기발주하고, 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본격 집행(10척 이상 발주)
- ③ (경쟁력 강화) '17년 약 1,800억원 규모의 R&D 투자 개시
 - 스마트십 상용화 로드맵(3월),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(상반기)을 마련하고,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(3월)
- ④ (보완대책) 특별고용지원업종 대형3사 추가지정(1분기) 여부 및 기간 연장 검토(2분기)
 -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(1분기)하고, 퇴직인력 3천명 재취업 지원
 - 중소기업정책자금(5,400억원), 특례보증(400억원)을 활용하여 경영안정 지원

1

시황 및 전망

- (발주량) '17년 세계 발주량은 2,050만CGT로 최저점인 '16년 대비 84% 증가하나, '11~'15년 평균의 49% 수준에 불과
 - * Clarkson 세계 발주량(만CGT) : ('11~'15 평균)4,204 ('16)1,117 ('17)2,050 ('18)2,950
 - 장기 누적된 선박의 공급 과잉이 '17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
 - 다만, 금년 하반기부터 IMO 환경규제*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일부 수요 증가와 유가 회복**으로 지연된 해양플랜트 발주도 기대
 - * '16년 NOx 배출규제, '20년 연료내 SOx 함유량 규제, '17.9월 평형수처리장치 탑재 의무화
 - ** 유가 전망(CERA, PIRA, EIA 평균, \$/B) : ['16년] 41 → ['17] 50~55(평균 52.5)
- (수주량) 우리의 수주량은 세계 발주량 증가로 '16년 대비 소폭 증가되나, '11~'15년 평균 1,314만CGT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*
 - * '16년 수주량 175만CGT은 세계 발주량 1,117만CGT의 15.6%로 '17년에는 지난해 수주비중 15.6%가 지속될 경우 320만CGT 추산(세계 발주량 2,050만×15.6%)
 - 조선 3社は '17년 목표를 '16년 실적 72억불 대비 226억불(현대 106, 삼성 65, 대우 55)로 높게 설정했으나, 실제 목표 달성은 불투명
 - * '16년 조선3社 실적은 72억불로 목표 195억불 대비 37%에 불과
- (수주잔량) '17년 수주잔량은 '16년말 1,989만CGT에서 대폭 축소* 전망
 - * 16년말 수주잔량 1,989만 + 신규수주 320만 - '16년 건조량 1,220만 = 1,089만CGT
 - 수주잔량 감소로 유동성 악화는 물론, 유휴 도크, 유휴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
☞ '17년 시황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회복되지만 과거('11~'15)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
해외 발주에 의존하는 우리 조선산업의 특성상, 조선업 위기 상황은 금년에도 지속될 우려

2 그간 추진 실적

구조조정 조선 3사 건조능력도크 3개 등 축소 및 자구계획 43조원 이행

- **(건조능력 축소)** 글로벌 불황에 대응하여 도크 3개(31개→28개) 및 직영 인력 6,713명(6만명 → 5.3만명) 감축
 - * 도크 감축 : (대우조선) 플로팅도크 2개 매각(5월, 8월), (현대중) 1개 가동 중단(7월)
 - * '18년까지 전체 감축 계획(도크 7개, 인력 2만명) 대비 이행률 : 도크 43%, 인력 24%
- **(유동성 확보 등)** 총 10.3조원 자구계획 중 4.3조원 이행*(이행률 41.7%)
 - * 업체별 자구 이행실적 : 현대중(3사) 2.0조원, 삼성중 0.6조원, 대우조선 1.6조원
 - 현대중 6개 부문 분할 결정(11.15), 삼성중 1.1조원 유상증자(11.28) 완료
 - 대우조선은 2.8조원 자본확충을 완료하고(12.29), 경쟁력 위주로 조직 축소·개편(204→159개 부서) 및 저가수주 방지시스템 마련
- **(기자재 업체)** 5개사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(10.19, 12.20)
 - * 5개사 : 삼영기계, 유일, 쓰리에스, 벤틀스, 리진

수주절벽 대응 추경을 통한 선박 공공발주 및 선박편드 규모 확대

- **(공공발주)** 4조원 규모의 선박(58척 이상, 추경사업) 조기발주 완료(12.29)
 - * 23개 중소조선사 및 설계업체가 수주하여 중소조선사 유동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(조선공업협동조합). 여타 경비함 1척, 군함 1개 사업은 현대중 수주
- **(신조발주 지원)** 선박편드(신조지원 프로그램)의 규모 및 대상선종을 확대*하고(12.30), 「조선-해운 상생 협의체」 신설(12.15)
 - * (규모) 1.3조원→2.6조원, (대상선종) 컨테이너선→벌크·탱커로 확대

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 육성 및 新선박 서비스 진출 기반 마련

- **(친환경 선박)** 연안 화물운송용 LNG 추진선 취득세(1.02→0.02%) 감면(1.7) 및 「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전략」 수립·발표 (11.16)
- **(서비스)** 조선 3사 및 엔지니어링 2사가 참여한 설계전문회사 설립 TF 발족(11.25) 및 설립 자문사 선정(12.20), 참여사간 지분비율 확정

☞ 전반적으로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나, 업황 부진 지속에 대응하여 인력·설비 등 구조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

3 2017년도 추진계획

- ◇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되 인력감축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, 시황 회복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제고
- ◇ 주요 목표 : 3사 자구계획 4조원 이상 이행(이행률 80%), 선박편드 통한 10척 新造 지원, 기활법 활용 15개사,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지원 3천명

구조조정 3사 자구계획 이행률 80% 이상 달성('17년 4조원 이상 이행)

- **(건조능력 축소)** 추가로 도크 3개 및 직영인력 1.4만명 감축
 - * (도크 감축) '16년 3개 → '17년 3개 → '18년 1개 감축 목표
 - '17년 현대중 2개 도크 가동 중단, 삼성중 플로팅 도크 1개 매각
 - * (인력 감축) 3사 직영인력 '16년 0.7만명 → '17년 1.4만명 감축
- **(유동성 확보 등)** 10.3조원 자구계획의 잔여 6조원 중 4조원 이상 이행하여 이행률 80% 달성
 - 대우조선은 생산설비 외 모든 자산 매각,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, 해양플랜트 사업 점진적 축소
 - * (자산매각) 마곡부지, 복합업무단지 등 / (자회사 매각) 웰리브 등 5개사 / (인건비) 분사, 무급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
 - 현대중은 하이투자증권·부동산, 삼성중은 호텔·R&D 센터 등 非핵심자산 매각 등을 추진
- **(기자재 업체)** 사업다각화와 15개사 이상 기활법 사업재편을 위해 '5대 지원 패키지*'를 제공하고, 7개 지역**에 '현장지원반' 설치(1.18)
 - * ①기업활력법 ② R&D ③사업화지원 ④사업전환지원자금(중기청) ⑤지방투자촉진보조금
 - ** 경남 3곳(거제, 창원, 김해), 부산, 울산, 전남, 전북

수주절벽 대응 군함 2개사업(1.5조원) 및 10척 新造(선박편드) 발주

- **(공공발주)** 상반기에 1.5조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* 조기 발주
 - * 울산급 Batch-II, 검독수리 브라보(B) Batch-I

- **(선박펀드)**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(2.6조원), 에코쉽펀드(1조원), 여객선 현대화펀드(0.1조원) 등을 활용, '17년 10척 이상의 新造 발주 지원
 - * '16년 지원실적 : 에코쉽펀드 4척, 여객선현대화펀드 1척
- **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적용 조건**(선사 재무구조 등) **완화** 및 **조기발주 계약 체결**(상반기), **여객선 현대화펀드 확대**('16, 100 → '17, 250억원) 등 추진
- **(해운-조선 상생) 상생 협의체**(매월 1회 개최)를 통해 '(가칭) **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사업***' 등 新造 지원사업을 발굴하고, 업계 애로 해소
 - * 주요내용(안) : 노후선박 조기폐선 및 친환경 선박 신조·개조시 지원

경쟁력 강화 '17년 1,800억원 R&D 투자 및 新선박서비스 진출 촉진

- **(친환경 선박)** 공공기관을 통한 LNG추진선 4척 시범 도입 추진
 - * 부산시 관공선 2척, 가스공사 소형LNG추진선 2척 상반기 발주
- **(스마트 선박조선소)** 스마트쉽 기자재 시험평가센터* 사업 착수(3월), 상용화 로드맵 수립(3월), 스마트조선소 대상 선정(1월 공고)
 - * 선박 ICT융합 장비 실증센터 구축 사업('17~'20년 80억원)
- **(기자재)** 기자재 업체의 해외 유지·보수 시장 진출 지원* 및 '조선 해양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**' 마련(상반기)
 - * 친환경선박 개조 수요에 대응, 대형 3사와 기자재조합 간 MOU 체결(상반기)
 - ** 주요내용(안) :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, 수출확대, 해외 유지·보수 네트워크 시장진출 등
- **(서비스)** 설계 엔지니어링, 수리·개조 등 新선박 서비스 산업 육성
 - **(설계)**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(Joint Venture) 설립(3월)
 - **(수리·개조)** 대형 3사는 노후 LNG선의 FLNG(가스 생산·저장·하역설비) 개조 시장, 중소조선사는 수리업 진출 확대(1개사→3개사)
 - **(LNG병커링)**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**항만운송사업법 개정**(3월 입법예고)
 - **(해양레저)** 마리나 산업과 해양레저 선박 산업 동반 육성
 - * 레저장비개발지원('17년 25억원), 레저선박 인증·평가센터 구축(전남, '17~'21 240억원)

실업 및 지역대책 실업 및 지역경제 부작용 최소화

- **(특별고용지원업종)** 고용상황,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**대형3社** 추가지정(1분기) 여부 및 **기간('17.6.30일 만료예정) 연장 검토**(2분기)
- **(고용지원)**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및 실적 시 재취업 지원
 - **(고용유지)** 인력감축 대신 무급휴직 시행 시 지원금 지급요건 **완화**(1분기)
 - * 개선안 : ①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(90→30일)
 - ② 무급휴직 前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·훈련 요건 완화
 - **(생활안정)** 고용상황, 재취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업에 대해 **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(최대 60일 이내) 검토**(6월)
 - **체불사업주 용자** 한도 확대(50→70백만원), **소액채당금 한도 인상**(現 3백만원) 등을 통한 근로자 구제 강화, **생활안정자금** 대부(1인 2천만원 限)로 생계 지원
 - 재취업 훈련 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**훈련생계비대부 지원 확대**
 - * (현행) 월 100만원 → (변경) 월 200만원, 연 1천만원
 - **(재취업)** 퇴직 기술인력 약 3천명의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*하고,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8대 조선사 핵심인력 유출 모니터링**
 - * '16년 2,128명 지원(461명 재취업 완료) → '17년 3,054명 지원
 - ** '16.12월 20개 핵심기술 직무분야 8,300명(고숙련 4,100명) 대상 모니터링 착수
 - **희망센터(4곳)**를 통한 전직지원·직업훈련·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강화
 - 조선 밀집지역 자치단체 주도의 **지역일자리사업*** 확대 및 **조기집행**
 - *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: ('16년) 989억 → ('17년) 1,313억
- **(경영안정)** 중소기업 정책자금(5,400억원), **특례보증(400억원)**을 활용하여 중소 조선사, 조선기자재 업체, 지역소상공인 등 지원
- **(사업전환)** R&D, 투자, 사업전환 자금 등 **2,400억원**을 활용하여 업종전환·사업다각화 기업 지원

II. 해운

16년 성과

**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
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**

- ① **(해운물류 정상화)**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('16.11월)하고 98%의 '컨'화물을 화주에 인도하는 등 3개월여만에 사태를 수습
- 국적선사의 韓-미주 시장점유율 등이 회복세 시현
* 韓-미주 시장점유율(한진 현대) : '16.8월(12.2% 16.6%) → '16.12월(0% 28.5% / 8월 수준으로 회복)
- ② **(선대개편)** 현대상선은 2M과의 해운동맹*(Alliance) 구성, 해외터미널(미국 롱비치, 스페인 알레사리스) 등 우량자산 인수 추진 등을 통해 도약 기반 마련
* 美 해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하는 구속력있는 제휴 관계로 타 해운동맹도 채택중인 동맹 형태
- ③ **(경쟁력 강화)** 6.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준비*를 착실히 하는 가운데, 선주-화주, 해운-조선 상생협약 체결 등 협력기반도 마련
*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위한 사무국 설치('16.11월),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('16.12월) 등

17년 계획

**6.5조원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, 선사의 화물수요
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**

- ① **(금융지원)** 상반기 중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발주,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6.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
- ② **(상생협력)** 선-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해운-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 강화
- ③ **(제도 개선)**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(상반기)하고 운임지수를 개발·제공(하반기)하는 등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
- ④ **(항만경쟁력)**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·개편방안을 마련(2월)하고, 미국·일본·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시
- ⑤ **(선사 경쟁력)**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 추진 및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 마련

1 시황 및 전망

- **(시황)** '08년 이후 수급불균형 지속으로 장기간 저시황 국면을 유지
- 컨테이너 운임(CCFI)은 장기 누적된 선박 공급과잉과 수요 증가 둔화로 '08년 이후 9년간 36.6% 하락
* 최근 미주노선의 경우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며, 구주노선의 경우 5주 상승 후 하락 추세
 - 건화물운임(BDI)은 선복량 증가세가 물동량 증가세를 약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영향으로 '08년 이후 9년간 89.5% 하락

< 세계 해운시장 운임지수 >

구 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08년 대비 '16년 증감률
컨테이너운임 (CCFI)	1,122	879	1,131	992	1,163	1,081	1,086	879	711	▲36.6%
건화물운임 (BDI)	6,390	2,617	2,758	1,549	920	1,206	1,105	718	673	▲89.5%

- **(전망)** 전반적으로 당분간 저시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2~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*를 보일 것으로 전망
- * CCFI : ('16) 711 → ('17.1) 840 / BDI : ('16) 673 → ('17.1) 910
 - '컨' 시장은 선복량 과잉 및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사간 M&A를 통한 체제 재편(4대→3대) 등 경쟁 가속화로 **시황회복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측**
* 물동량 : ('16) 180.7→('17) 188.0백만TEU / 선복량 : ('16) 20.2→('17) 20.7백만TEU
 - 건화물은 선박 공급과잉과 중국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수요 약세가 지속되어 저수익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
* 물동량 : ('16) 48.84억톤 → ('17) 49.79억톤 / 선복량 : ('16) 7.9억DWT → ('17) 8.0억DWT

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저시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선사간 M&A·재편된 해운동맹 출범('17.4) 등 치열한 경쟁 예상

2 구간 추진실적

◇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물류사태 정상화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

구조조정 한진해운 사태 물류 정상화 및 선대 개편

① (물류정상화)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 합동대책 T/F* 및 현지대응팀**을 구성하여 하역화물 점검 등 비상 대응 실시

- * 기재부 1차관, 해수부 차관 공동주재 / 9.5~11.8까지 총 20회 개최
- ** 21개국 33개 항만에서 현지대응팀 가동, 주요 거점항만별 하역 상황 점검

- (화물처리) 총 39.6만TEU 중 38.7만TEU(97.7%) 화주 인도 및 처리종료
- (선원관리) 한진해운 관리 선박(61척)에 승선 중이던 선원 1,297명(韓534명, 外763명) 중 1,242명이 승하선 교대·반선으로 본국 복귀

- * 잔여 선박 3척에 승선 중인 55명은 최종 반선 조치 후 하선 예정

- (기타지원) 피해업체에 대한 수출물류 및 금융지원*(4,656억), 한진해운 육·해상 직원에 대한 타 선사채용** 지원 추진(현재까지 538명 채용)

- *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금융지원('17.1.23. 기준) : 총 921건 / 4,656억원 지원
- ** 육상직 퇴직자(1.23기준, 405명) 중 SM상선 216명 채용, 현대상선 67명 채용
해상직 퇴직자(1.23기준, 363명) 중 255명은 국적선사 재취업(현대상선 33명 등)

② (선대개편) 한진해운의 태평양노선은 SM상선이 인수(1.5), 롱비치(美), 알헤시라스(西) 등 해외 터미널은 현대상선에서 인수 추진 중

- (현대상선) 2M 얼라이언스 가입('16.11) 이후 '시장점유율·영업이익률 5% 달성('21년)을 목표로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 추진 중

- * 국내 근해선사(장금상선·홍아해운)와 아시아 노선 공동운항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(HMM+K2) 결성을 위한 협약체결(1.3)

- (SM상선) '17년 총 12척의 선박(사선 6척, 용선 5척, 대선1척)을 확보하여 아시아('17.3월), 미주('17.4월)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 예정

- * 한진해운 자산인수를 위한 대금 지급(1.5)에 따라 SM상선 정식 출범(1.9)(직원 216명)

경쟁력강화 해운산업 지원 기반 토대 구축

◇ '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'의 주요 과제들이 작동되어 선사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 마련

- *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'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' 마련(10.31)

① (금융·세제 지원)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(11.25)하여 대표이사 선임, 직원채용 등 관련 절차 진행 중

- 캠퍼드 확대(2,000억→5,000억)를 위한 이사회 승인(12.29) 및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관련 정책금융기관간 협약* 체결(산은, 12.30)

- * 지원 금액 확대(1.3조→2.6조) 및 대상선종 확대('컨'선→벌크, 탱커)

-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(취득세·재산세 감면, 지역자원시설세 면제) 일몰 연장을 위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완료(12.8)

② (제도·인프라 구축) 선사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선주-화주 상생협약(12.13) 및 해운-조선 상생협약 체결(12.15)

- * 선박 신조 활성화를 위해 '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' 설치(선주협회, 12.15)

- 해운거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(11.9) 및 '17년 실행 계획 마련(12.30), 선사 경영정보 DB 구축을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(12월)

- 전 항로 대상 운임공표제 시행('16.7~)에 따라 초기 시행 기간 부정 공표 사례를 분석('16.11)하고, 부정사례 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(12.21)

③ (선원 등 인력확보) 법정관리 퇴직선원 고용 및 재취업교육 희망 선원 수요조사*(11.17), 해양대 승선학과 증원을 위한 세무계획 마련(12.29)

- * 29개 선사 채용희망 규모는 361명, 재취업교육 수요는 약 120명

④ (항만경쟁력 강화) 글로벌 물류기업 마케팅* 실시, 환적화물 운송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배차 시스템 개발(12월) 및 선석공동운영협약 체결(12.29)

- * 물류기업 유치 홍보(11.22~23/홍콩) 및 타겟 마케팅 실시(11.24~25/싱가폴, 12.12~14/베트남)

3 2017년도 추진계획

◇ 6.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,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

유동성 지원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 기반 마련

- (한국선박회사 : 1조) 한국선박회사 설립 완료(1.25) 후 1차 인수대상 선박 확정(2월), 선박 인수 및 재임대(S&LB)를 통해 유동성 공급(상반기)
 - 선사 지원 확대를 위한 선박 추가 인수 및 재임대 검토(수시)
- (캠코선박펀드 : 1.9조) 펀드 지원 규모를 기존 2천억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, 선종별 투자설명회 개최(5월, 11월)
 - * '15 : 2,013억원, '16 : 2,099억원, '17~'19까지 매년 5,000억원(총1.9조원)

금융·세제 지원 선박 신조 등을 위한 금융·세제 지원 확대

- (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: 2.6조) 발주계획이 있는 선사와 지원조건 협의 중('17.1~)으로 금년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계약 체결 추진
- (해양보증보험) 보험 담보기관을 확대하고,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
 - 은행연합회 안건 상정을 통해 기존 4개 기관(수은, 산은, 수협, 부산)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 담보기관 확대(상반기)
 - 신규보증보험 상품 설계('16.12)에 따라 보험상품을 승인(금감원, 2월)하고, 신규 보험상품 개시(4월~)를 통해 중소선사 보증 확대
- (글로벌 해양펀드 : 1조) 자산 매입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(수은)
 - 수은·산은을 통해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 추진(상반기)
- (세계지원)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(3월)

상생기반 구축 안정적 화물 확보 및 해운·조선 협력 강화

- (선·화주) 선종별로 화주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상생기반 조성
 - 화물 적취율 제고 등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체결(선주협회-무역협회, '17.2) 및 제도개선(안) 마련(10월)
 - '발전수송 상생협의회' 운영을 통해 발전사와 상생 협약 체결 확대* 및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'종합심사낙찰제' 시범사업** 추진
 - * 선주협회와 중부발전, 동서발전간 상생협약 체결(상반기)
 - **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체결(선주협회-발전사, 상반기),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분야 시범사업 대상 선정(산업부 협조, 하반기)
- (해운·조선)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발주 수요,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 마련('17~)
 - '선박발주 애로사항 접수센터' 운영지침 마련을 통하여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강화(금융위, 산업부 협조, 하반기)

제도 개선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

- (해운경영관리시스템 강화)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 추진(분기별 DB 갱신)
- (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등)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(상반기) 및 운임지수 개발·제공(하반기),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(해운법 개정, 상반기)
 - '해운산업발전위원회' 근거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(2월)
- (운임공표 내실화) 부정운임 신고제도(고발제도)를 도입(상반기)하고, 점검반 구성·운영을 통해 공표운임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(상시)
- (시장 진입요건 강화) 기업 난립 방지를 위한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*를 위한 개정안 마련(2월) 및 법령 개정(6월)
 - * 용선선박 신고대상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확대하고, 용선료까지 신고

- (선원 등 인력확보) 한진해운 선원 1:1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(1월~), 교육부에 해양대 정원 증원 요청(3월)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

* 퇴직연금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('16.9)

-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(2월) 및 해사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(6월)
- 해운중개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(3월) 및 법령 개정안 마련(12월)

항만경쟁력 강화 환적화물 유치 등을 통해 해운과 시너지 극대화

- (환적화물동량 유치) 미국·일본·중국·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 실시(PA 공동, '17.上·下)

-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·개편 방안 마련(2월) 및 '16년 물동량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 제공(4월)

- (항만서비스 효율화) 인접터미널간 내부도로를 통한 환적화물 운송 및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 시범 운영(3월~)

- 항만하역장비 대형화·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 지원(PA, '17년 5.4억 예산배정)

- 항만서비스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 활용 물류시스템 및 항만보안, 표준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(9월)

- (물류네트워크 강화) PA가 국적 선사·운영사 등의 국내 터미널 운영권 및 해외 물류거점 유지·확보 지원

-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통합 운영사 지분투자 및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 유지 지원(상반기)

- BPA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및 중국 상하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각 항만당국과 협약체결(9월)

III. 철강

16년 성과

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및 경쟁열위 분야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실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 제시

- ① (사업 재편) 긴밀한 민·관 협의를 통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품목(후판·강관), 경쟁열위 설비(전기로) 등에 대해 기활법 적용 4건 승인
 - * 동국제강(후판 180만톤, 11월), 하이스틸(강관 1.4만톤, 10월), 현대제철(전기로 20만톤, 11월), 우신에이펙(알루미늄건조재 5만톤, 11월)
- ② (경쟁력 강화) 고부가 제품, 설비·안전 등 경쟁력 강화 과제도 진전
 - (고부가 제품) 미래차·에너지·친환경 철강재의 R&D 기획 및 경량소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('16.12월), 주요 철강업체가 1.4조원의 투자계획 발표
 - * 포스코(경량소재 R&D설비, 4,300억), 현대제철(고부가 설비, 8,110억), 동국제강(컬러강판, 853억)
 - (설비·안전) '수소환원 제철공법'(온실가스 15% 감축) 기획을 완료('16.11월), 안전성이 강화된 건설용 철강재 산업표준(KS 규격 24종) 개정('16.12월)

17년 계획

사업재편 성과 창출 확대와 함께 보완대책을 병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개발 등 본격 추진

- ① (사업재편) 철강·설비 + 신규 품목·설비 등 기활법 6건 승인 목표
 - 공급과잉 품목(후판, 강관 등) 설비조정과 경쟁우위 설비 M&A 적극 유도
 - * (후판) 수요량 모니터링, 실질생산능력 감축 / (강관) 한계기업 설비 M&A / (고로) 설비 효율화
 - 철강 외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발굴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유도
- ② (보완대책) 후판·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,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(1분기)
- ③ (경쟁력 강화)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설비 스마트화
 - (고기능) 3D 프린팅용 메탈 R&D 기획(1분기), 초경량·이종(異種)결합 소재 개발 착수(3분기) 등 자동차·조선·3D 프린팅용 고기능 소재 개발 본격화
 - (스마트)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AI 활용 스마트제철소 보급·확산
 - * 국내 철강사 구축 성과를 참조하여, 중소철강사용 표준모델 개발(1분기) 및 시스템 개발(3분기)
 - (친환경)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공법 R&D 착수(2분기), 철강 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(1분기)

1 시황 및 전망

□ (글로벌) 공급과잉 소폭 완화, 철강재 가격상승으로 업황 일부 개선

- (수요) 신흥국 수요 증가(4%↑) 불구, 선진국 경제(1.1%↑)·중국 수요 감소(2.0%↓)로 전세계 철강수요 정체 전망 (세계철강협회(WSA))

▶ 세계수요 증가율('16.10, %) : ('14) 0.7 → ('15)△3.0 → ('16) 0.2 → ('17) 0.5
▶ 중국수요 증가율('16.10, %) : ('14)△3.3 → ('15)△5.4 → ('16)△1.0 → ('17)△2.0

- (공급) 전세계 조강설비(23.8억톤)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(11.5억톤)의 구조조정*이 일부 진전('16년 67백만톤↓) → 공급과잉 해소 부족

▶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침('16.9월) 확정 : '20년까지 설비용량 10억톤 이하 목표

- (가격) 철광석·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, 중국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국제 철강재 가격 인상(上高下低)으로 업황 일부 개선 전망

* 국제철강 가격지수 (94.4월=100) : ('14) 165.9 → ('15) 127.3 → ('16) 134.7 → ('17) 149.3

□ (국내) 내수시장 수요 위축(1.9%↓), 일부 품목 공급과잉 지속

- (수요) 자동차(1.2%↓), 조선(12.4%↓) 등 수요산업 침체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('16 10.9% → '17: 4.3%)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 전망 (철강협회)

- (공급) 후판, 강관, 합금철 등 일부 품목의 구조적 공급과잉 지속 예상

▶ (후판) '17년 국내 조선사 수요 약 250만톤 감소 전망 (조선협회 조사, '16.12월)
▶ (강관) 저유가로 인한 자원개발 침체 속에 자발적 사업재편 진행 중
▶ (합금철) 제강 폐원료 설비 가동용량 감소('14년: 89.3만톤 → 16년말: 48.3만톤)

☞ 글로벌 공급과잉 소폭 완화, 가격상승에 따른 실적개선 등 예상되나, '후판, 강관'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지속 추진 필요

2 그간 추진실적

사업 재편 공급과잉 품목(후판강관 등), 경쟁열위 설비(전기로) 4건 승인

- (후판) 포스코 1개 라인 가동중단 계획 발표('16.11월), 동국제강 1개 라인 매각 계획(180만톤)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('16.12월)

- 현대제철은 고급후판 비중 확대방안('16: 58 → '17: 74%) 마련('16.12월)

- (강관) 하이스틸 노후설비(1.4만톤) 매각 및 특수강관 증설(대구경 6만톤, 소구경 아크용접 3.6만톤) 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('16.10월)

- (전기로) 현대제철 단강제조용 설비(20만톤) 매각 및 고부가 단조 투자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 (11월)

- (비철) 우신에이펙 알루미늄 건자재 설비(5만톤) 감축 및 선박 LED 조명 설비 투자계획에 대해 기활법 적용 승인 (11월)

경쟁력강화 방안 고부가경량소재 R&D 등 1.4조원 투자 계획 발표

- (고부가) 미래차·에너지·친환경 고부가 철강재 등 신규 R&D 과제(8개 37억원) 심의 완료('16.12월), 타이타늄·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예비타당성(총사업비 510억원) 조사 완료 ('16.12월)

- 고부가·경량소재 설비·R&D 투자 관련 ① 포스코 ('21년까지 4,300억원), ② 현대제철('18년까지 8,410억원) 발표, ③ 동국제강 고부가 칼라강관 R&D·설비 확충(853억원) 예정

- (친환경·안전) 수소환원제철공법 기획 완료(11월), 국민 안전을 위한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24종 개정 완료(12월)

① 수소환원제철공법 기술개발 ('17~'23) : 민관 총 1,500억원 투자 예정
② KS규격 24종 : H형강, 도금강판 등 강도 기준을 유럽표준(EN) 이상으로 강화

☞ 산업발전 방향 제시, 선도기업들의 사업재편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사업재편 및 경쟁력강화 지원 본격 추진 필요

3 2017년도 추진계획

◇ 사업재편 성과 창출 및 대상 확대, 보완대책(수요발굴, 인력대책) 병행 추진

◇ 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, 고기능 소재 개발, 스마트·친환경 공정 구축

사업재편 철강 품목 + 신규 공급과잉 품목 등 6건 승인 목표

- **(철강)**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(후판, 강관 등) 설비 조정·매각, 경쟁우위 설비(냉연, 도금 등)의 M&A 등 사업재편 적극 유도
 - (후판) 중장기 수요 전망과 조선사 수주 및 후판 수요량 변화('17년 조선사 수요 2.5백만톤↓)에 대응
 - 현 생산능력 1,279만톤에서 실질생산능력(명목생산능력 + 고부가 생산비중) 감축 유도
 - 가동중단 계획 이행, 범용재 대비 고급후판 비중 증대, 후판 수출(미국 수입규제)·수입량(중국·일본산 등) 모니터링 강화
 - (강관) 강관협의회(철강협회 산하)와 협력, 한계기업 설비의 선택적 인수 유도 등 3건 이상 기활법 적용 신청 수요 발굴·지원
 - (고로) 포스코의 1고로 폐쇄(73.6월 가동, 128만톤) 및 3고로 개보수(447 → 511만톤) 등 설비 효율화 관련 기활법 적용 협의
- **(비철)** 철강 이외에 합금철 등 새로운 공급과잉 품목을 추가 발굴하여,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 유도
 - (합금철) 가동 중단 설비(총 설비 89.3만톤 중 41만톤)의 폐쇄·매각 및 고부가 사업 신규 진출 지원 → 기활법 적용과 연계

수요발굴·인력대책

공공 수요 창출 및 철강 전문인력 양성활용

- **(공공 발주)** 후판, 강관 등 수요 침체가 심각한 품목의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방안 협의

① 비규격 공공가로물(안전펜스, STS가로등, 불라드) 교체 ② 공공선박 발주 계약서에 국산 철강재 사용률 명시, ③ 노후 상수도관 교체·방파제용 철 구조물 활용 등 SOC 사업 (지자체·공기업 협의)

- **(전문인력)** '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' 수립('17.1분기)
 - 고부가 철강재 연구인력 양성 및 재직자 전문교육을 위한 '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'(서울, 당진, 인천, 광양 등 철강산단) 지정('17년 중)
 - 퇴직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(설비진단, 컨설팅 등) 개설(철강협회, 100명 목표)

4차 산업혁명 대응

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·친환경 공정 구축

- **(고기능소재)** 자동차, 항공, 3D 프린팅 등 수요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초경량, 이종결합, 3D프린터용 소재 개발
 - 3D 프린터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 및 육성 계획 마련('17.1분기)
 - * 해외사례·국내 생태계 조사, 타이타늄, 알루미늄 소재 분말 R&D('21년까지 157억원) 등
- **(스마트제철소)** IoT·빅데이터·AI 활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
 - 국내 철강사 구축 성과(포스코 열연2, '16년 착수)를 참조하여, 중소 철강사 맞춤형 표준 모델('17.1분기) 및 시스템 개발('17.3분기)
- **(친환경)** 온실가스 저감공법 개발 및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
 - (친환경공법) 온실가스 획기적 저감(15%↓)이 가능한 수소환원 제철공법 기술개발 착수('17.2분기, 총 1,500억원(~'23년))
 - (철스크랩) 전문 유통·가공기업 육성 및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
 - ① 「유통·가공 전문기업 육성방안」 수립('17.1분기), ② 거점별 전문 가공 시범공장 5개 지정('17.4분기), ③ 산업단지 입주 지원('18년)

IV. 석유화학

16년 성과

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과 함께 설비 효율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① (사업재편) 선도기업의 선제적인 공급과잉 품목(PS, 가성소다) 축소, 고부가 사업(ABS) 확대에 대해 정부의 기활법 적용 3건 승인
 - * LG화학 PS 50% 감축(10→5만톤) 및 ABS 설비(3만톤) 전환(12월),
 - * 한화케미칼 가성소다 설비(20만톤) 폐쇄 및 유니드 가성칼륨 설비 전환(9월)
- ② (경쟁력 강화) 설비·품목·인프라 등에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
 - (설비) 대형화와 원료비 절감, 배관망 구축 준비 등 가시적 성과 도출
 - * LG화학(104→127), 대한유화(47→80), 롯데케미칼(100→120만톤) 등 NCC 대형화
 - * 현대케미칼 이란산 콘덴세이트 활용 설비(원료비 절감 5%) 완공(11월)
 - * 울산 지상배관망 사업 참여업체 확보 및 기본연구용역 발주(11월)
 - (품목) 고부가·고기능 제품 R&D 확대 및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
 - (인프라) 대산특화단지 조성 TF 구성 완료(10월) 및 연구용역 발주

17년 계획

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 병행

- ① (사업재편) 석유화학 →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4건 승인 추진
 -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속 추진
 - * TPA는 M&A 또는 자율감축을 통한 적정수준 조정, PS·PVC·합성고무는 신규 사업 발굴로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범용제품 사업재편 유도
 - 중장기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해 공급과잉 우려품목 추가 발굴
 - * 정밀화학, 플라스틱, 고무산업으로 사업재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조사 (1분기)
- ② (경쟁력 강화)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,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
 - (설비) 울산 지하배관망 관리방안 수립 및 DB구축으로 안전성을 제고, 유틸리티 사업자와 입주업체 주도로 지상배관망 구축 본격 추진(연내)
 - (품목)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R&D 투자 확대, 탄소소재법·예타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 마련
 - (인프라)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·정밀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조기 추진, 용수부족 문제 해소 등 인프라 확충 병행 (1분기, 국토부 해수담수화 예타)

1 시황 및 전망

□ 글로벌 수요 증가 대비 공급능력 확대 지연으로 업황 양호 전망

- (수요) 주요 수요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
 - (중국) 6~7%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재고 확보 수요 증가
 - * '17년 중국 경제성장률(%) 전망 : WB(6.5), 中사회과학원(6.5), 노무라증권(6.4)
 - * '16년 de-stocking → '17년 re-stocking 전환, 제고수요 증가 전망(동부증권 등)
 - (인도) “Clean India” 정책 추진 등으로 제품수요 증가 예상
 - * '19년까지 총 100억불을 투자해 6천만 개의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계획
- (공급)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 증가는 제한적
 - (북미) OPEC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, 유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*이라는 전망에 따라 셰일가스 설비의 대규모 신증설이 어려울 전망**
 - * 이라크의 감산 미 이행, 리비아 등 증산으로 60불/B 이내 유지 전망(JP모건)
 - ** '17년 에틸렌 설비 8백만톤 공급 증가(5%↑) 예정이나 실제 증가량은 4백만톤 내외에 그칠 전망('12년 이후 계획 대비 실제 공급증가율(40~60%) 고려, NH투자증권)
 - (중국)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석탄화학 증설은 어려울 전망
 - * 베이징 주변 스모그로 시노펙 등 1,200여 업체 생산 중단·감산('16.12월말)

□ 다만, 일부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

- (TPA) 제품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, 원료(파라자일렌 : PX) 가격 대폭 인상으로 마진은 오히려 축소되는 양상
 - * 가격 상승('16.1 567 → '17.1 653불/톤)에도 불구하고, 원가(PX) 상승으로 마진 축소(86→59)
- (PS·합성고무) 대체재(PS → ABS·PET, 합성고무(BR·SBR) → SSBR) 전환으로 석유화학업계 평균('16년 15.3%) 대비 낮은 수익률 지속
 - * 금호석화(합성고무 생산 주력)는 '16년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(4.3%) 기록

☞ 전체 업황은 양호하나 일부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지속 필요

2 기간 추진실적

사업 재편 PS·가성소다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사업 확대 (3건 승인)

- **(PS)** LG화학은 여수산단 소재 PS 설비 50% 감축(10 → 5만톤), ABS 설비 3만톤 증설(85 → 88만톤), 기활법 적용 승인 완료('16.12월)
- **(가성소다)** 한화케미칼은 울산산단 소재 가성소다 설비 전부(20만톤)를 유니드에 매각(가성칼륨 설비로 전환), 기활법 적용 승인 완료('16.9월)
 - (한화) 투자여력(약 850억원) 및 유니드로부터 PVC원료(염소) 안정적 확보
 - (유니드) 인천 소재 설비이전 문제 해소 및 염소 판매로 부수익 창출

경쟁력 강화 방안 설비·품목 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추진

- **(설비)** 대형화와 원료비 절감, 배관망 구축준비 등 가시적 성과 도출
 - **(대형화)** LG화학, 대한유화, 롯데케미칼 등 NCC '규모의 경제' 강화
 - * LG화학(104 → 127만톤), 대한유화(47 → 80만톤), 롯데케미칼(100 → 120만톤)
 - **(원료비)** 현대케미칼은 이란산 콘텐츠사이트 활용 설비* 완공('16.11)
 - * PX(파라자일렌, TPA 원료)의 전 단계 공정인 MX(Mixed 자일렌) 생산 설비(70만톤)
 - 정부는 납사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(3 → 0.5%)('16.12월)
 - **(인프라)** 울산 지상배관망사업 기본연구용역 발주(산단공, '16.11월)
- **(품목)** 고부가·고기능 연구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반 조성
 - **(3대 부문) R&D 예산**('17년 352억원) 확보 및 과제 공고('17년 5개)
 - * 미래 주력산업(전기차 등) 소재, 고기능 화학소재(OLED염료 등), 친환경 소재 등
 - **(탄소소재)** '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' 예비타당성조사 통과('16.12월)
- **(인프라)** 대산특화단지 조성 TF 구성* 완료('16.10월) 및 연구용역 발주
 - * 정부(산업부, 국토부, 농림부), 지자체(충남도, 서산시청), 기관(산단공, 수공, 농어촌공사), 업계

사업재편 첫째 성과를 확산시키고 경쟁력 확충을 병행 추진할 필요

3 2017년도 추진계획(안)

◇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 추진 독려

◇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 발굴 및 경쟁력 확보 지원 대책 병행 추진

사업 재편 공급과잉 품목 →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 (4건 이상)

- **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속 추진(기활법 적용)**
 - **(TPA) M&A** 또는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
 - * (감축목표) 현 585만톤 중 가동중단 설비(일부)와 기업간 M&A를 통한 설비 조정 추진
 - **(PS)** 기존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재편 유도
 - * (PS) LG화학의 감축 사례를 타 업체(현대EP, 한국이네오스, 금호석화)로 확산 추진
- ※ (고려요인) 유가 변동, 가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계·전문가 의견 반영 (1분기)
 - ▶ (유가) '17년 평균 52.5불로 '16년 41.4불/B 대비 27% 상승할 것으로 예상
 - ▶ (가격) '17년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재고 소진으로 인해 가격상승 전망
- **(합성고무·PVC) 범용 →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유도**
 - * (합성고무) 금호석화 BR/SBR → SSBR 전환 유도, 롯데케미칼 SSBR 신규 추진
 - * (PVC) 내열성PVC(CPVC), Clean PVC 비중을 확대하되, 기존설비 감축은 최근 인도向 수요 증가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(한화케미칼 등, 1분기)
- **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, 설비, 업종 모니터링**
 - **(품목)**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한 공급과잉 우려품목 추가발굴
 - * 업계, 컨설팅회사 등으로 구성된 '사업재편연구회'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(1분기)
 - **(설비)** NCC 대형화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가능성 모니터링
 - * 대한유화·LG화학·롯데케미칼에 이어 일부 NCC업체도 증설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
 - **(업종)** 정밀화학, 플라스틱, 고무산업 등 사업재편 대상범위 확대
 - *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'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' 마련 (1분기 용역발주)

설비경쟁력 배관망 확충 및 안전성 확보로 설비간 연계효율 제고

- **(배관망)** 울산 지하배관망 안전성 제고 및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
 - 지하배관망 안전관리방안 수립(3분기) 및 배관망 D/B 구축(4분기)
 - * (예산) ①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 (3.5억원, 산단공), ② D/B구축 (20억원, 울산시)
 - 유틸리티 사업자와 입주업체 주도로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
 - * 사업추진방안 (1단계 : 울산석화단지내 → 2단계 : 울산·온산단지間 연결 확정(1분기), 노선안 등 기본설계 착수(2분기), 사업추진(연내))

4차 산업혁명 첨단수송기기·고기능 화학소재 R&D 투자 확대

- **(기술개발)** 미래 주력산업 소재*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&D 집중 지원
 - * ① 전기차·드론용 플라스틱, ② 바이오·웨어러블 기능성 소재, ③ 친환경·무독성 소재
 - 적시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조기 착수
 - * (일정) 과제공고접수(1월중) → 수행기관선정(2월말) → 기술개발 협약(3월)
- **(탄소산업)** 전북·경북 클러스터 조성 추진기반 마련 (탄소소재법 근거)
 - 제1차 종합발전계획 수립(2분기), 탄소소재융복합진흥기반* 조성(3분기)
 - * ① 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, ② 기술연구협의회 구성, ③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
- **(세제지원)** 기업의 적극적인 R&D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추가된 고기능섬유, 하이퍼플라스틱 등 지속 지원
 - 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별표) 개정 협의 (3분기, 기재부·산업부)

입지여건 확충 대산 첨단화학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

- **(대산단지)** 석유화학과 첨단정밀화학 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 조성
 - 사업추진 기본방향 확정(2분기, 산단공) 후 조기 사업시행 추진
 - * 사업·지정계획 수립 및 시행자 선정(충남도, 3분기) → 사업시행(건설사)
 - 용수문제 해소방안 마련(기재부·국토부 협조, 2월)
 - * (방식) 해수담수화(예타 추진)/준설/관로설치, (비용부담 주체) 수공/농어촌공사/업계

V. 향후 점검 계획

- ① 경쟁력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관·협조부처 협력체계를 통하여
 - 업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매월 업종별 이행상황을 관리
 - 특히, 업종별 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현장 방문을 통해 경쟁력강화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
- ② 범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3개의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서도 지속 점검
 - (기업구조조정분과회의) 기업별 자구계획 이행상황, 경영정상화 수준 등 점검
 - (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)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상황, 기업활력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·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현황 등 점검
 - (경쟁력지원분과회의) 수시로 이행상황 점검 및 부처간 조율 노력 지속
- ③ 향후 시장여건 변화,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(Rolling Plan)할 계획

참 고

업종별 주요 정책과제 2017년 세부 추진 일정

1 조 선

정책 과제	담당부처
▪ 조선3社자구계획 이행 (연중)	금융위
▪ LNG연료추진선 취득세 감면 (1월)	행자부
▪ 7개 지역 '현장지원반' 설치 (1월)	산업부
▪ 해운-조선 상생협약체 개최 (매월)	산업부, 해수부
▪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 (2월)	산업부
▪ 특별고용지원업종 대형 3사 추가지정 여부 검토 (3월)	고용부
▪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(3월)	고용부
▪ 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 (3월)	산업부
▪ 스마트쉽 상용화 로드맵 수립 (3월)	산업부
▪ 스마트쉽 기자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개시 (3월)	산업부
▪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지원요건 완화 (1분기)	금융위
▪ LNG병커링의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예고 (1분기)	해수부
▪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(상반기)	고용부
▪ 1.5조원 규모의 군함 조기발주 (상반기)	방사청
▪ '조선해양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' 마련 (상반기)	산업부

2 해 운

정책 과제	담당부처
▪ 한국선박회사 설립(1분기)	금융위/해수부
▪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조계약(상반기)	금융위/해수부
▪ 해양보증보험 담보기관 확대 및 신규보험상품 개발(상반기)	금융위/해수부
▪ 글로벌해양펀드를 통해 터미널 등 자산 매입(4월)	해수부/기재부
▪ 발전사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선정(하반기)	산업부/해수부
▪ 해양대 교원 및 정원 증원 요청(3월) 및 증원(18년)	해수부/교육부
▪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선정(상반기)	해수부
▪ 부정운임 신고제 도입(상반기)	해수부
▪ 해운업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 법령개정(상반기)	해수부
▪ 환적화물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(2월)	해수부
▪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 운영(3월)	해수부

3 철 강

정책 과제	담당부처
▪ 철스크랩 유통·가공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 (1분기)	산업부
▪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(1분기)	산업부
▪ 3D프린터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 및 육성계획 마련 (1분기)	산업부
▪ IoT·빅데이터·AI활용 스마트제철소 표준모델 개발 착수 (1분기)	산업부
▪ 수소환원제철공법 전문가포럼 개최 (1분기)	산업부
▪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착수 (2분기)	산업부
▪ 중소철강사 맞춤형 시스템 개발 (3분기)	산업부
▪ 고부가 철강재 R&D 착수 (3분기)	산업부
▪ 거점별 철스크랩 전문가공 공장 선정 (4분기)	산업부
▪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 지정 (4분기)	산업부
▪ 공공부문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협의 (연중)	산업부

4 석유화학

정책 과제	담당부처
▪ 해수담수화 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(1월)	기재부/국토부
▪ 공급과잉 우려 품목 추가발굴 및 사업제편연구회 운영 (2월)	산업부
▪ 공급과잉 품목 사업제편 수요 발굴 및 기활법 승인 (3월)	산업부
▪ 정밀화학, 플라스틱, 고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(3월)	산업부
▪ 울산 지상배관망 단계적 사업 추진방안 마련 (3월)	산업부
▪ 기술개발과제 조기 착수 (3월)	산업부
▪ 「탄소 융복합소재 중합발전계획」 수립 연구용역 발주 (3월)	산업부
▪ 울산 지상배관망 기본설계 착수 (2분기)	산업부
▪ 대산 첨단정밀화학 특화단지 기본방향 수립 (2분기)	산업부
▪ 탄소소재 융복합 진흥기반 조성 추진 (3분기)	산업부
▪ 울산 지하배관망 안전관리방안 수립 (3분기)	산업부
▪ 핵심기술 연구개발 착수 (3분기)	산업부
▪ 울산 지하배관망 D/B 구축 (4분기)	울산시
▪ 울산 지상배관망 사업 개시 (4분기)	산업부
▪ 조특법상 핵심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포함 (4분기)	산업부/기재부